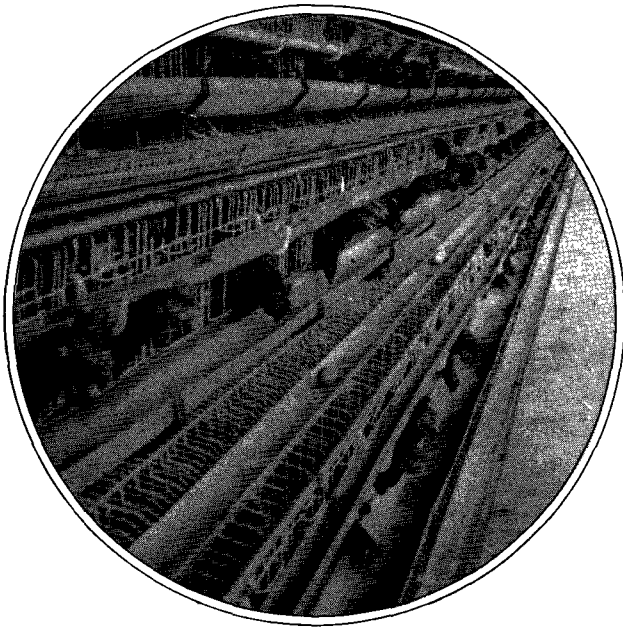


보온과 환기에 중점을...

□ 정리/김동진 기자



이 번 겨울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중부지방에 내린 첫눈이 작년에 비해 한달 앞당겨 찾아온 것이 이를 증명해

주듯 계사들도 예년에 비해 일찍 월동준비에 들어갔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때아닌 한파가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 어느겨울 못지않게 계사주위를 구석구석 점검

해 둘 필요성이 있다.

혹한기가 계속되면 체란계는 산란율이 떨어지고 계사 내부를 과보호하기 때문에 공기가 탁해져서 호흡기병 등이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계사내에 질병이 한번 발생할 경우 간단하게 치유 회복되는게 아니고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 발생이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게 중요하며 추위로 인한 사료 섭취량도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인데 계사내 온도가 낮을 때는 닭들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료의 형태로 섭취한 에너지를 갖고 체내에서 열을 생산하

여 빼앗기는 열을 보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계사내 온도가 낮아 체온조절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산란계의 경우 산란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 예로 표1에서 산란계의 대추기간 중 계사내 온도와 생산성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산란량과 사료 요구율이 온도변화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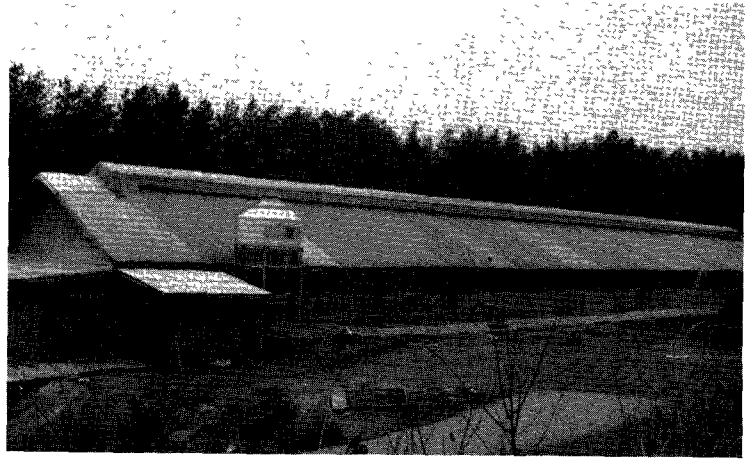
표1. 산란계에 있어서 대추기간중 계사내 온도와 생산성

(24~32주령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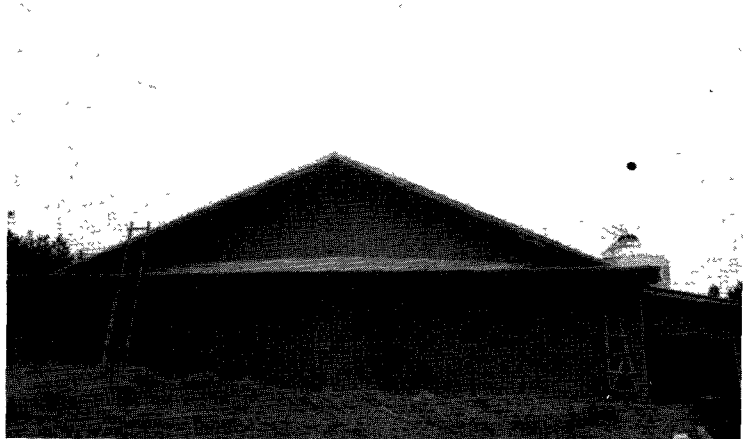
계사내 온도	초 산 일령(일)	1일1수당 산란량(g)	사 료 요구율
6.8℃	160	43.7	2.20
14.0	162	45.5	2.04
23.3	159	45.4	2.05
29.6	163	43.6	2.06

정선부('84 월간양계)

센서를 이용한 자동화 시설이 보급된 양계장에서는 온도, 환기, 급이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기와 시설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리만 잘 하면 큰 무리가 없으나 재래식 개방계사를 경영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 보온이 완벽하게된 봉릉농장 전경



• 외부에 보온덮개로 빈틈없는 방한설비를 했다.

의 농가에서는 계사에 적합한 단열재를 이용하여 보온에 특히 중점을 두되 환기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방계사의 경우라도 보온이 완벽하고 환기가 충분하면 무창계사 못지않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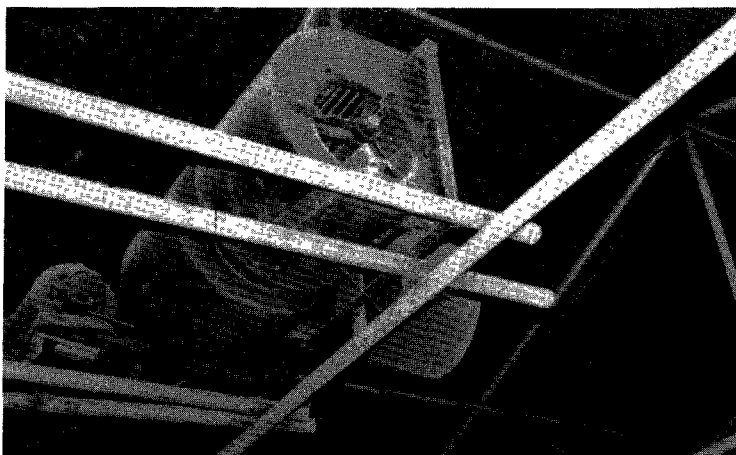
반 사양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계란 창고도 인부들이 작업능률 향상과 계란의 품질을 보존하기 위해 단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도 중요하다.

이번에 기자가 생산농가에서 겨울철에 대비하여 월



• 계사 내부 전경(원내는 빈재운 사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겨울철에는 닥트를 떼어내고 환기창을 이용

동준비를 점검코자 찾은 곳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에 위치하고 있는 봉릉농장(빈재운 사장)이다.

봉릉농장은 외부에서 보기에 무창계사와 착각할 정도로 보온덮개와 비닐을 이용한 보온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79년 육계로 부터 양계를

시작한 빈사장은 인부를 구하기 힘들어 4년전 육계농장을 채란계사로 바꾸었고 올해 1만수 규모의 1개동을 추가로 신축하면서 시설도 국산기자재를 이용해 현대화를 꾀했다.

빈사장이 겨울에 대비해 가장 신경쓰고 있는 것은 환기이다. 수도시설은 지하

수를 땅속으로 연결해 얼 염려가 없으며 단열은 혹한 기에도 닭의 자체열로 인해 7℃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완벽하기 때문에 보온덮개와 비닐을 이용, 빈틈없는 바람막이로 새로 신축한 반수규모의 계사는 지붕위에 원치커텐을 이용하여 환기를 시키고 계사주위는 보온덮개로 외부 온도를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측면에는 2중 비닐을 설치하여 환기와 온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는 측면에 설치해둔 비닐과 보온덮개를 제거하고 차광망을 설치하여 열을 막아주고 바람을 시원하게 통풍시키게끔 설계되어 있다.

계분 벨트를 이용해 자주 계분을 치우기 때문에 계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최소화 하여 쾌적한 계사상태를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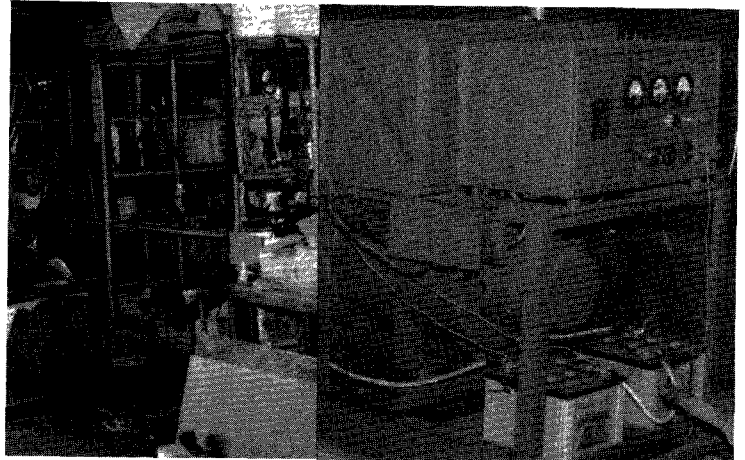
빈사장은 생산성이 높은 닭을 길러내기 위해 병아리를 부화장에서 직접 골라 민을 수 있는 중추농장에

위탁을 시켜 70주령에 중추를 받아 기르고 있어 닭의 균일성에 의한 생산성향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농장에서 특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계사와 가정집이 멀리에서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에 보온덮개가 씌워져 있어 닭의 생활사를 좀더 이해하려는 양계인임을 엿볼 수 있었으며 200평 규모의 큰 창고가 있는데 40kw용량의 자가발전기와 갖가지 용구를 가지런히 비치하고 있어 기계에 이상이 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유비무환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인부는 관리인을 포함한 3명인데 집란벨트에 의한 계란수거와 1만개의 알을 1시간내에 선별할 수 있는 계란 선별기 2대를 설비하여 별 어려움없이 일을 소화해 내고 있다. 알은 상인들에 의해 서울로 출하되고 있다.

육계사를 채란계사로 바꾼 2만수규모의 2개동은 환기가 불량한 관계로 내년엔 환기를 고려해 4만수 규모 계사로 새로 건축할 예정에



• 발전기와 각종 정비를 비치하고 있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있다.

겨울철의 환기는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일교차를 적게하는데 바람직하다. 특히 야간의 환기는 외부온도가 내려가므로 암모니아나 탄산가스를 계사내의 유독가스를 제거해줄 정도의 환기량을 확보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겨울철에 안심하고 양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닭의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사의 보온을 위한 단열제의 설치, 호흡기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량 조절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허실되는 사료량과 산란저하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된 열쇠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337**

